
제주연구원-중국섬서성사회과학원

- 학술교류 업무 협의 -

2017. 10

제주연구원

I. 출장개요

□ 목 적

- 2016년 8월 섬서성 사회과학원에서 양 기관의 세미나가 진행되었지만 최근 중한관계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, 섬서성 사회과학원은 충북연구원과도 학술교류를 맺고 있어 섬서성사회과학원-제주연구원-충북연구원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함
- 본 출장은 향후 섬서성사회과학원과의 교류를 진행함에 있어 학술교류방향과 일정 및 방식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율하는데 의의가 있음
- 또한, 한국에서 개최 시 세 개 기관의 공동 학술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도 병행하여 체결하고자 함
- 또한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및 총영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국 및 섬서성 현황, 한국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
- 본 출장에서는 당초 북경에서 대외경제무역대학교 방문 및 대외교류 담당 실무자와 협의를 통해 11월 제주연구원의 국제세미나 초청 및 제주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, 11월 제주연구원 국제세미나 참석이 확정되어 주시안 총영사의 대중국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음

□ 개요

- 기 간 : 2017년 10월 16일 ~ 10월 19일(3박 4일)
-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:
 -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, 중국 섬서성사회과학원
- 여행자 인적사항 : 정지형(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)
- 주요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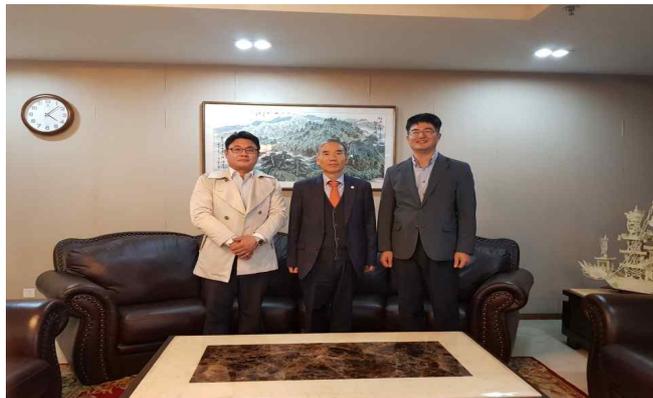
월 일 (요일)	출발지	도착지	방문 기관	업무수행내용 (수집할 자료목록, 질의할 내용 등)	접촉예정인물 (직책포함)
10월 16일 (월요일)	제주	북경	(이동)	• 제주 출발 → 북경 도착	
10월 17일 (화요일)	북경		이동 주시안 대한민 국 총영사관	북경-서안 중국 및 섬서성 현황 및 한중간 정세 의견 청취	이강국 주시 안 총영사
10월 18일 (수요일)	서안		중국 섬서성 사 회과학원	• 학술교류 및 공동세미나 진행 - 주요 내용 논의	- 王健康 대 외교류처장
10월 19일 (목요일)	서안 김포	인천 제주	(이동)	• 서안출발 → 제주 도착	

II. 출장내용

1)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방문 및 한중관계 의견 청취

□ 개요

- 일 시 : 2017. 10. 17.(화) 15:00~17:00
- 장 소 :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
- 참여자 : 이강국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



□ 주요내용

- 섬서성은 삼성 전자가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규모 투자하면서 우리

기업체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임

- 삼성은 섬서성에 1기공정 70억달러, 2기 공정에 5억불 총 75억불을 투자하였음
- 삼성은 섬서성 정부, 서안정부, 고신개발구와 MOU 체결을 하였으며, 이는 개혁개방이후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외자유치라 할 수 있음
- 한국에서 외국으로 투자한 가장 큰 규모임
- 섬서성은 시진핑 주석의 고향이고 신 실크로드 정책인 「일대일로 (一帶一路) 전략」의 핵심 지역으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임
- 실크로드 국제 박람회, 유라시아 포럼 등 일대일로 관련 세미나 및 국제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음
- 향후 중국 정부 및 각 지방정부는 중국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추진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구상, 구체적 계획 수립을 지속해 나갈 것임
- 현재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어 한국이 협력할 여지가 많지 않지만 한국은 향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를 적극 활용하여 한중 양국의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
- 제주 또한 KOTRA, 관광공사 등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행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
- 특히 섬서성의 경우 삼성의 투자유치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

2) 섬서성 사회과학원 업무협의

개요

○ 일 시 : 2017. 10. 18.(수) 13:30~16:30

- 장 소 : 중국 섬서성사회과학원
- 참여자 : 王健康 대외교류처장



□ 주요내용

- 제주연구원-섬서성사회과학원은 2016년 8월 학술교류 MOU를 체결하였음
 - 최근 중한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양 기관의 학술교류가 조금 어려운 실정임
 - 또한 섬서성 사회과학원은 충북연구원과도 학술교류를 맺고 있어 한국에서 개최 시 섬서성사회과학원-제주연구원-충북연구원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음
 - 이에 세 개 기관의 공동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며, 세 개기관 MOU 체결을하기로 하였음
- 또한 내년엔 제주연구원 - 섬서성사회과학원 혹은 제주연구원 - 섬서성사회과학원 - 충북연구원 세 개 기관의 공동연구 진행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, 주제 발굴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음
 -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주와 섬서성이 큰 연관이 없지만, 문화, 역사, 인문교류 등 분야에서는 공동연구 주제 발굴이 매우 높음

- 따라서 우선적으로 양 기관의 학술교류 진행 등을 통해 공동연구 주제발굴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
- 섬서성사회과학원은 2017년 11월 16일 제주연구원이 주최하는 '한중 국제학술세미나: 한중 교류협력강화방안 포럼'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음

Ⅲ. 시사점

- 최근 한중 관계가 소원해져 있지만, 섬서성의 경우 삼성의 투자로 인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
- 사드문제가 민감하지만 큰 틀에서 중미 관계 등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국과의 관계를 우려할 정도는 아님
- 특히 섬서성은 일대일로 핵심지역으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 이를 활용한 공동연구, 학술세미나 등 진행이 필요함
- 본 출장을 통해 섬서성 사회과학원과의 학술교류에 대한 방향과 양 기관의 입장을 조율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